

법인 지급결제 가능성에 증권사 ‘들썩’… 직접 수혜 기대감

자산운용 효율성 ↑… 경쟁력 강화
급여이체 등 신규 서비스 연결 호재
“증권사 규모 따라 입장 다를수도”

증권사의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논의되면서 지급결제 여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은행권뿐만 아니라 증권사, 보험사, 빅테크 등에 대해서도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일 개최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과의 경쟁 촉진과 금융소비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법인 지급결제 허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도 증권사의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14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증권사 CEO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법인 지급결제 서비스 관철을 중장기 성장 비전으로 꼽기도 했다. 서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법인 지급결제는 10여년간 증권업계 숙원사업”이라며 “그동안 분담금도 4000억원 가까이 내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만 허용하고 법인만 허용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 지급결제를) 은행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농협, 신한, 새마을금고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금, 네트워크도 다 갖추고 있는 대형 증

권사가 못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도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을 운영해 오는 6월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인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기업들은 증권사를 통해 급여 이체를 할 수 있

며, 제품 판매대금 이체, 협력업체 결제와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계좌로 개인은 자금송금과 이체가 가능하지만, 법인은 은행의 가상계좌를 반드시 거쳐야만 이체 업무를 할 수 있다. 고객들 입장에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다양한 금융권을 통해 월급통장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인 지급결제 허용은 증권업계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지난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 이후로 증권사는 법인 지급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돼 왔다. 업계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법인 지급결제 허용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급결제 여력을 갖춘 대형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또 법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CMA 계좌를 월급통장으로 이용하면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도 있다. 중소형사의 경우 법인 고객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설명이다. 지급결제 시스템을 새롭게 허용하려면 금융결제원과 한국은행에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중소형 증권사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것은 맞지만, 중소형사는 혜택이 적을 것”이라며 “대형 증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인 고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금을 투입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metroseoul.co.kr

잘 나가는 2차전지株… 수주 가능성 살펴야

증권업계, 관련주 추가 상승 전망
“밸류에이션 높은 종목 관심 가져야”

증시에서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증권업계는 정책 수혜 및 전기차 시장의 성장 지속 등으로 2차전지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단기 급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부진했던 종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2차전지 관련주들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전날 미국 제록스 과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p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에도 이날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

2차전지 소재 대표주인 포스코케미칼은 전 거래일보다 0.96% 오른 26만

30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포스코케미칼은 전날 장중 27만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기도 했다. 에코프로비엠도 지난 6일 전 거래일보다 19.17% 상승한 21만 7000원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에도 에코프로비엠은 전일 대비 1.70% 오르며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전기차 판매 감소 우려로 조정받았던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에는 테슬라의 중국 판매 호조, 대형계약 소식, 공매도 물량이 매수세로 전환되는 쇼트커버링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들은 대규모 수주가 이어짐에 따라 2차전지 관련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업체별로 수주 가능성이 달라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창현 연구원은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는 3월에도 유럽·북미 정책 수혜 기

대감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이라면서도 “최근 일부 종목의 급등한 주가에 대한 피로감 누적과 정책 모멘텀 소멸 이후 단기적 조정을 감안하면 개별 기업의 실적과 밸류에이션(평가치)에 기반해 업종 내 상대적 주가 부진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종목들에 관심을 두는 등 선별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2차전지 관련주의 주가가 과도하게 오른 상황으로 당분간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장정훈 삼성증권 연구원은 “수주 확대 기대감이라는 호재와 메탈가격 하락이라는 악재가 맞서는 국면에서 전방 수요에 대한 고민만 늘어준다면 긍정적인 투자 환경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이벤트 시기와 규모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3월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관희 기자 wkh@



유재호 DL이앤씨 플랜트사업본부장(오른쪽 세 번째)이 미국 텍사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열린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 기공식에서 발주처 인사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DL이앤씨

DL이앤씨, 美 석유화학 플랜트 사업 ‘첫 삽’

GTPP 기공식… BIM 등 첨단기술 적용

DL이앤씨가 미국 텍사스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Golden Triangle Polymer sProject)’의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스 프로젝트는 미국 셰브론 필립스 케미칼과 카타르 에너지의 합작 법인인 골든 트라이앵글 폴리머가 발주한 사업이다. 세계 최대인 연간 100만톤 규모의 폴리에틸

렌 생산 유닛 2기를 짓는 프로젝트로 오는 2026년 상업 운전이 목표다.

DL이앤씨는 지난해 7월 이 사업을 수주했다. DL이앤씨 미국 현지법인인 DL USA가 미국 건설사인 자크리 인더스트리얼(Zachry Industrial)과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DL이앤씨는 모듈러 및 BIM(건설정보모델링)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이번 프로젝트 수행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대환 기자 kdh@

안랩·나무기술 등 국민의힘 테마주 제자리

“가치 상관없이 등락, 투자 주의해야”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테마주’들이 직전까지 요동친 가운데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주가가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원래 되찾아가는 모습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안철수당 대표 후보가 창업한 안랩은 전거래일 대비 500원(0.68%) 오른 7만 3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안랩은 이날 중에만 오전에만 음전과 양전을 반복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보였다. 안랩은 장 초반 전일 종가 대비 3% 가까이 내린 7만 1000원대까지 하락했지만, 이내 두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7만 6700원까지 크게 치솟았다. 그러나

오후 들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다.

안랩은 올 들어서 안 후보의 당 대표 출마 소식과 함께 크게 오른 바 있다. 안 후보가 당 대표 출마에 나서기로 한 지난 1월 9일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6만 7100원에 불과했던 안랩은 이후 급등하면서 월말까지 39.34% 9만 3500원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이후 전당대회 당일인 이날까지도 별다른 반등없이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7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안 후보의 또 다른 관련 종목으로 꼽히는 씨니전자 역시 주가가 크게 오른 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연초 2560원에 불과했던 씨니전자는 지난달 1일 60% 이상 오른 4135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씨니전자 역시 이후 별다른 반등없이 내림세가 이어졌고, 이날도 전일 대비 35원(1.26%) 내린 2735원에 장을 마쳤다.

김기현 당 대표 후보 관련주로 언급되는 주식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김 후보의 관련주로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나무기술이 거론된다. 이들 회사 내부 감사 및 사외이사가 김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이유로 관련 종목으로 엮여왔다. 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과 나무기술은 지난 1월에 크게 급등하면서 연초 대비 각각 28%, 91% 이상 크게 올랐다. 그러나 이날까지 고점 대비 25% 가량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정치 테마주는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내리는만큼 투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영석 기자 ysl@

현대엔지니어링 DR콩고 댐바임부 정수장 준공

하루 3.5만 정수… 40만명 주민 공급

현대엔지니어링은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이하 DR콩고)에서 ‘댐바임부 정수장 1단계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DR콩고 수도 킌사사 남동부 댐바임부 킌바세케 지역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안남규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과 무툼보(Mutombo David) DR콩고 상수도공사 사장, 조재철 주콩고민주공화국 대한민국대사, 이상범 농어촌공사 감리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019년 7월 해당 사업을 착공 했으며, 지난해 8월 통수식을 갖고 정수된 물을 생산 및 공

급하기 시작했다. 이후, 약 반 년 만에 정수장 이외 배수지 등 부대시설을 건설해 종합 시운전과 발주처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및 운영지원까지 최종 완료하고 준공식을 개최했다.

댐바임부 정수장은 이번 1단계 사업 준공으로 하루 3만 5000톤의 정수된 물을 생산해 29km에 이르는 송·배수관을 통해 약 40만명의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향후, 2·3단계 사업에서는 정수장 물 처리 용량, 배수지 저장 용량 및 송·배수관 시설 등을 확대한다. 사업이 마무리 되면, 하루 약 20만톤의 정수된 물을 생산해 약 100만여 명 이상에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환 기자